

광주 시립병원 수탁기관 선정 논란

‘환자 폭행’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광주 시립요양병원과 시립정신병원이 이번엔 수탁기관 선정을 놓고 잡음이 휩싸였다.

평가 결과 1위를 하고도 탈락한 의료기관이 ‘정신과 전문의도 없이 정신병원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까지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시립 정신병원과 제1요양병원 수탁자 심사 결과, 우암의료재단이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중 시립 제1요양병원은 ‘노인환자 폭행사건’과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 내부고발자 상벌위원회 회부 시도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의료기관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수탁신청을 한

S병원 “신청자격 충족 못했음에도 선정” 시 “전문 의 상근, 과목 개설과 상관 없다”

3개 기관 중 두 곳을 대상으로 병원의 책임 운영 의지와 역량, 인건 보호, 의료 공공성, 의료의 질 향상 경영 투명성과 재정 능력 등을 평가했다. 경쟁 의료기관인 S병원은 평가에서는 1위를 차지했지만 신청 병의 기관과 법인 설립 주체가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리됐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관과 현 운영 법인의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 새로운 수탁자 운영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간이다.

그러나 이같은 수탁 과정을 놓고

탈락한 S병원 측은 “우암이 모집공고에 적힌 신청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최종 선정됐다”고 반발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달 수탁자 모집공고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설중인 종합병원·의료법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병원 운영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의사로서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S병원 측은 “우암 측은 시가 수탁자 교체에 나서자 3개월 전 정신건강의학과를 급히 개설했고, 상주하는 전문의조차 없을 정도로 제

로 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청 자격이 없다”고 반발했다. 또 “(S병원) 부적격처리로 일부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S병원은 시에 이같은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시는 “9월 초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설할 당시 전문의가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했고, 지금도 특정 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다”고 밝힌 뒤 “전문의가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과목 개설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S병원에 대해서는 탈락 결정 후 소명 기회를 줬다”며 “일부 심사위원이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해석의 차이”라고 해명했다

서은홍 기자

광주서 공사장 담장 무너져...40대 부상

18일 오후 1시7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공사장에서 담장 일부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40대로 추정되는 근로자 1명이 허리 등을 다치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배수로 공사 도중 담장 일부가 무너졌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0여초만에 금은방서 귀금속 텀 20대 달미

금은방의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10여 초만에 3000여만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새벽 시간에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2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21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의 한 금은방에 든 기로 유리문을 깨고 침입해 3000여만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4000여만원의 빚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모자를 쓰고 등산용 옷과 마스크를 한 A씨가 금은방을 털고 사라진 시간은 10여초에 불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김씨의 뒤를 쫓아 상무지구에서 검거했다.

화장실 변기수리 사기 행각 60대 구속

고장난 화장실 수도꼭지나 변기를 수리해 주겠다고 속여 돈만 받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어린이집이나 학원 식당을 돌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A(62)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일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고장난 화장실 변기를 고쳐주겠다고 5만원을 받고 달아나는 등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19곳에서 1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장실 변기와 수도꼭지가 고장났다. 부품값과 수리비로 5만~7만원 정도 든다. 내가 직접 부품을 사서 교체해 주겠다’고 속여 돈만 받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년 간 비슷한 수법의 소액 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에 나서,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장면을 바탕으로 A씨의 도주 경로를 분석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부산, 서울, 부천으로 도주 중인 A씨를 3개월 간의 추적 끝에 붙잡았다.

동부경찰서 한 관계자는 “영세 상인들을 울리는 악성사기 특별 단속을 위해 전담반을 꾸렸다”며 “비슷한 수법의 사기 행각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상인들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0대 성범죄자 수감 중 재소자 추행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정보공개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8일 오후 11시께 전주교도소 기결수 수용동에서 동료 B(65)씨가 잡이 든 사이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전주지법에서 강간비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A씨는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본 뒤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점”이라며 “최질이 무겁고 성범죄로 복역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지역광고·이벤트·정판·광고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홀리스 추모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2017 홀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주최로 열린 '2017 홀리스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세상을 떠난 홀리스 및 무연고 사망자들의 위패가 놓여 있다.

광주야구장 소음피해 주민들 “1심 판결 불복 26일 항소”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소음 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아파트 주민들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야구장소음피해 A아파트 대책위는 18일 “광주지방법원의 야구장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기각 결정은 행정편의적인 판결이었다”며 “26일 광주고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지난 7일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허상진)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 65명(애초 732명)이 야구장 신설에 따른 빛·소음공해·교통 불편 등을 호소하며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책위는 “재판부의 판단은 주민의 휴식권을 무시한 것이다”며 “야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조명으로 인해 수백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들 중에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작은 소음에도 민감해 한다”며 “획일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각 결정 직후 변호사와 주민들이 모여 상의를 했다”며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에도 ‘피고인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측은 인근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스피커 사용 자제, 차폐 조정수사제,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재판부도 주민들이 소음과 빛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항소에 참여한 피해 주민의 수는 대략 줄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1심 소송에는 주민 65명이 참여했지만 항소에는 40여 명이 참여한다”며 “소음을 측정할 때 기준치인 60dB 이하로 측정된 주민은 이번 항소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생활고 시달리다 강도짓 30대 집유

실직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노령의 남성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25일 오후 2시16분께 광주 북구 한 지역 B(78) 씨가 운영하는 모 사무실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침입한 뒤 홍기(공구)로 B 씨를 협박, 11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8월께 실직,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예전에 택배 일을 하면서 거래했던 B 씨의 사무실에 현금 이 고령이었던 점을 상기, B 씨의 사무실을 방범 장소로 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홍기로 노령의 피해를 협박하고 재물을 빼앗은 사건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단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주춘정 기자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길길 5

광산구